

# 주제발표 논문

■ 전요섭(Ph.D., Ed.D., 성결대학교)

- 한국 문화상황에서 내담자의 언어분석과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적 대안

■ 최광현(Th.D., 계명대학교)

- 고령화 현상속에서의 기독교노인복지 상담의 필요성과 가능성





# 한국 문화상황에서 내담자의 언어분석과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적 대안

전 요 섭 교수  
(Ph.D., Ed.D., 성결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문화상황에서 내담자의 언어분석을 통해 내담자를 치료, 개선, 회복,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담에서 언어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외상, 영적 상태, 또는 문제를 이해, 진단, 분석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방편이다. 상담은 수술요법, 약물요법 혹은 전기치료가 아닌 언어를 통한 회복이다. 그러므로 상담은 내담자의 상처, 문제를 치료, 개선, 회복,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신경학적, 사회적, 개인적 제어 장치로 인해 언어를 통한 내담자의 충분한 이해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의 언어를 통한 분석의 한계점과 제한점을 인식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여과망을 제거하고 회복의 장으로 나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중심단어 :** 기독교상담, 상담, 언어, 어의치료, 고백

## I. 여는 글

문화는 단순히 정의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보편적으로 그 민족의 공통적 생활방식이며 이는 언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문화를 구분할 때 언어를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문화가 언어는 아니지만 언어는 문화

를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방편이다. 언어는 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기 보다는 문화의 기초가 된다.<sup>1)</sup> 또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도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간의 의사소통의 방편이며,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전달기능을 가진 음성신호체제이다.<sup>3)</sup> 인간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경험, 감정, 신념, 사고방식과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을 이해하게 된다. 문화를 창달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언어이며, 의사전달의 매개체로서 언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와 사상, 생각 등을 전하게 된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각이란 곧 자기에게 하는 언어이고, 이 언어가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에 경험은 의미가 없게 된다. 물론 언어가 사고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사고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 더 나아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언어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언어학이나 언어심리학의 연구 분야이다.<sup>4)</sup> 그렇지만 언어는 인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인지구조와 관련하여 인지심리학 분야의 연구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는 명확하게 상담학적이며, 특히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써 분명히 기독교상담학 연구영역이 아닐 수 없다. 상담은 수술요법, 약물요법 혹은 전기치료가 아닌 언어를 통한 회복이기 때문에 언어는 상담현장에서 근본적이며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대해 인지치료자 Donald Meichenbaum은 상담을 ‘어의치료(語義治療, semantic therapy)’라고 불렀다.<sup>5)</sup> 상담의 정의를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참여하여 두 사람의 언어의 세계를 넘나들며 교류하는 대화의 해석학적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일각도 있다.<sup>6)</sup> 이는 언어적 교류를 강조한 정의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통해 그를 이해, 분석, 진단, 평가하게 된다. 더욱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외상(trauma), 영적 상태 등은 언어를 통해 나타남으로 역시 언어를 통하여 내담자를 치료, 치유, 개선, 회복,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언어는 다른 상담보다도 기독교상담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의존했으며,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인간의 언어인출, 유입과정에 여과망이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 상담에서 내담자의 상태를 언어로 분석할 수밖에 없지만 언어가 지니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살펴 보며, 이에 대하여 복음주의적 기독교상담학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화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언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 II. 펴는 글

### 1. 언어의 능력과 권위

인간관계에 있어서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다.<sup>7)</sup> 언어는 인간관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을 결정해 준다. 친절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부드럽고 품위있는 말을 사용하지만,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는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 Ilion T. Jones는 언어를 일컬어 '점화장치(ignition device)' 라고 불렀는데, 이는 언어가 인간 상호 간의 인지, 정서뿐만 아니라 영혼에 감동을 주거나 자극을 주어 어떤 행동을 유도, 발화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도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sup>8)</sup> 총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지휘관의 "발사(짜라!)"라는 명령 언어이다. 말 한 마디에 총을 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처럼 실제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총이나 칼 같은 무기 자체보다도 사고와 언어가 선행된다. Adolf Hitler는 독일 국민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까지 계속 연설하여 설득시킴으로써 목적을 달성했고, 결국은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영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심리적인 면에서도 언어는 점화작용을 하게 되는데, 언어의 점화작용은 결국 인간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sup>9)</sup> 언어는 사고변화의 요인이 된다. 그리고 사고변화는 곧 행동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모든 변화의 요인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긍정적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긍정적 사고자이어야만 한다.<sup>10)</sup>

언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지시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청자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선동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언어는 단지 소리가 아니라, 일정한 결과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언어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치유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언어의 치유적 기능은 주로 대인관계적 구조에서 일어난다. 치유적 기능이란 언어가 화자로부터 청자에게 들려지게 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처럼 청자가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기까지는 힘과 권위를 인정하거나 수용해야 치유적 기능이 나타나게 된다. 상담현장에서 상담자의 권위와 지침이 치유의 기능으로 나타나 회복에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증상이나 소외로부터 내담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sup>11)</sup>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는 단어, 언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본주의 심리학자 Abraham Maslow로부터 언어의 영향력을 분석한 Marshall McLuhan까지 과학적으로 세밀히 분석되어왔다. 언어는 Ernest Cassirer로부터 Jurgen Ruesch를 거쳐 Theodore Thass-Rhienemann에 이르기까지 연구되었으며, 오늘날 현대인들은 단어의 사용과 그 용도에 대한 영향력과 권위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sup>12)</sup>

친구들의 말과 의사의 말의 권위가 다르고 아내의 말과 상담자의 말의 권위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지식에 작용하며, 그것은 곧 바로 행동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재형성' 또는 '인식의 변화'라고 한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주셨다. 동물에게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인간과의 의사소통은 그 차원이 다르거나 불가능하며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자체도 가능하지 않다. 동물이나 어린아이들도 분명히 감정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이나 아동은 감정을 즉각적으로 빨리 발산시키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그들의 감정을 마음속에 보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조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하나님 관계의 시작은 언어로부터 비롯된다. 언어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했는지 알 수 있다.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수준, 삶의 방식, 행복 등 심리상태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 존재이며, 동물은 문화적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인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생물도 그들의 문화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기록으로 남기어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창세기에 따르면 사단이 인간을 처음으로 공격할 때도 언어적 수단을 채택했다는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언어의 분리가 발생되었다(창 11:9). 언어의 분리는 곧 바로 문화의 분리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과 인간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언어로 표시되다가(마 26:35-베드로의 충성 맹세),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언어로 자행된 것(마 26:74-베드로의 예수 부정)을 볼 수 있다. 선물이었던 언어는 축복과 은혜의 방편이 됨과 동시에 왜곡과 저주의 방편으로 악용된 것이다.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현상도 언어가 축복의 도구임과 동시에 저주의 방편임을 말하고 있다. 사단은 언어를 무기로 삼고 언어 속에 의심, 왜곡, 부정, 저주, 파괴, 미움, 조작 등을 내포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허물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 상담현장에서 발견되는 내담자의 문제들 가운데 공통성은 그들이 겪는 문제에 언어가 결부되지 않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볼 때, 인간이 겪는 문제 가운데 상당수는 언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언어 때문에 상처받고, 언어로 위로받고, 언어로 용기를 얻고, 언어로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언어로 분리를 조장하고, 언어를 듣고 행동하게 된다. 언어는 인간 상호 간의 정황을 조성하고 변화시키며 행동을 좌우하고 지도한다.<sup>13)</sup> 상담에서 낙심된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기본적인 가장 강력한 도구는 언어이다. 결국 사고가

언어와 행동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언어 또한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sup>14)</sup> 그러기에 언어는 치료 및 치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sup>15)</sup>

## 2. 상담과 언어

### 1) 치유적 통화

상담은 언어를 통해서 내담자의 사고와 행동변화 및 그로 인한 증상의 치료, 개선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심리 저변에 있는 우울, 불안, 공포, 갈등, 분노, 고통 등을 언어로써 이끌어 내어 더 이상 마음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밖으로 표출시켜야 한다. 바로 그 기능을 언어가 하는 것이며 이것을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언어의 치료적 효과에 대하여는 성경에 충분히 나타나 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창 34:3)”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창 50:21)” “...저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대하 32:8)”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시 109:3)”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37)”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행 15:32)”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8)” 등의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말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말로 안심하게도 되고, 말로 미워하게 되며, 말로 마음이 굳건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말은 치료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미국정신의학협회(AP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심리치료를 “환자와의 언어적이며 비언적인 의사소통을 일차적인 기반에 두고 심리적이며 정서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것”<sup>17)</sup>이라고 정의했다. Sigmund Freud도 상



담을 일컬어 ‘말로 하는 치료(talking cure)’라고 한 바 있으며, 인지치료자 Meichenbaum은 ‘어의치료(語義治療, semantic therapy)’라고 불렀다.<sup>18)</sup> 또 이것을 ‘자아의 언어화(self verbalization)’라고도 한다. R. C. Trench도 상담은 말에 의한 훈련이며, 충고, 책망에 의한 훈련도 필요할 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sup>19)</sup> 구성주의(constructivism)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의미있게 만들고, 인간의 행동을 타인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sup>20)</sup> Jay E. Adams는 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상담하고 훈계하여 내담자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보았다.<sup>21)</sup>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상호 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호기심은 시대와 상황 및 사상을 넘어서 늘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 2) 언어와 심리적 강조

내담자가 상담실에서 상담자에게 “저는 아무개를 미워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저는 슬퍼요!”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한 이후로는 말하기 이전보다 더욱 슬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간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감정적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는 화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실상 다소 혐오스럽기는 해도 끔찍한 것은 아니지만 “끔찍하다!”고 표현하면 끔찍하다는 용어에 걸 맞는 감정이 발생된다.

언어는 한 사람의 신경적 제어, 사회적 제어, 개인적 제어를 통해서 나오지만 입 밖에 나온 언어를 들은 본인도 그에 걸 맞는 사람이 되려는 시도와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충족적 예언(self fulfillment prophecy)’이라고 부른다. “저는 혼자 있으면 우울해요!”라고 말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서 우울을 경험했고, 또 혼자 있으면 우울해질 것을 예기(anticipation)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생각의 액센트(accent)’라고 하는데, 이는 말을 함으로써 생각이 강조된다는 뜻이다. 어떤 일을 생각하고 기억에만 두고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생각을 입 밖에 냈으로써 더 나쁜 감정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

답은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하는 대화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심리적 고통을 표면화시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불쾌감, 서운함, 분노, 좌절 등 내담자가 겪는 불쾌한 감정이나 불편의 수준을 폭언과 고함을 치는 형태로써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폭언이나 고함을 침으로써 당초에 느꼈던 감정보다도 훨씬 더 심한 감정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 때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거나 생각을 갖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보다는 음성적 언어로 표현하면 그 강도가 더 해진다. 즉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신앙이 성장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언어의 심리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면 신앙고백은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한국적 문화상황 및 전통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기도를 묵상으로 하는 것과 소리 내어 통성으로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달라진다. 변증적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전도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근거가 있다. 로마서 10장 9-10절에 기록된 대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은 다분히 심리학적 근거도 가지고 있다.

### 3. 언어의 통제

언어는 가치를 표현하는 방편으로써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계를 드러내게 된다. 가치에 따라서 말하고 가치를 숨기기 위해서 언어를 조작하게 된다. 즉 예수를 부정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를 인정하여 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더 오래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언어의 조작(거짓)이 나타나 자신의 가치를 유지시켜 나가려고 했다. 즉 인간은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 자신의 신념에 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나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속였거나 가치관이 그것을 용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가치관이 그것을 용납한 결과인데 이것을 용납할 정도라면 그 계명이 자신에게 신념화되지 않았거나 매우 약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심리적 간격과 혼란은 보편적으로 한 사람의 영적, 심리적, 육체적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각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혼란은 적응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sup>22)</sup>

#### 1) 인출 제어

어떤 정보의 유입과 인출은 순간적으로 한 사람의 내면적 제어장치를 거치는 과정을 통한 작업이다. 유입에 작용하는 제어와 유출에 작용하는 제어 기능은 전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유입은 유입 정보의 분석과 판단에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인출은 반드시 음성적 언어로 내면의 정보를 나타내야만 하는 적극적 과정이므로 순간적 제어작용을 비롯하여 역동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두뇌의 외상을 입게 되면 언어가 인출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언어는 입의 작용이 아니라 뇌의 작용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언어와 뇌의 작용 및 관계, 즉 언어와 그것의 사용을 통제하는 중추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두뇌와의 관계는 신경언어학(neuro-linguistics)의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인간의 뇌에 있는 정보가 언어로써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각자의 제어장치 및 여과망(filters)에 의해서 걸러져 나온 단어가 비로소 입을 통해 음성적 언어로 나오게 된다.<sup>23)</sup> 이를 '통제된 언어적 표현'이라고 부른다.<sup>24)</sup> 뇌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지식, 경험, 감정, 태도, 신념, 사고방식 등이 이러한 여과망을 거쳐서 정보를 언어로 인출하게 된다. 통상 모든 언어인출은 이러한 여과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내담자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내면세계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하면 학대를 당한 내담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의 초점을 학대에 두고 이야기를 해나가겠지만 학대의 두려움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 끔직한 경험의 일부는 억압으로 인하여 누락할 수도 있다. 밖으로 표출된 언어란 이미 그 사람의 신경적, 사회적, 개인적 제어를 거친 후의 나온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입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말로써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처럼 내면에 여과장치가 많이 있어서 많은 부분 억압과 억제의 현상은 신경성 신체화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sup>25)</sup> 그런가하면 Norman Wright는 상담자에게 서슴없이 충격적인 자기 이야기를 여과없이 하는 내담자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sup>26)</sup>

Edgar N. Jackson은 건전한 언어는 건전한 개개인의 습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한(disturbed)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심리적 장애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sup>27)</sup> 즉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들리지게 하려고 자신의 제어장치를 통해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심리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여기서 제어장치라는 것은 어떤 정보에 대한 언어 인출(output)과정으로써 불순물이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상, 내면에는 존재해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든 표현해서는 안 되는 언어적 표현을 스스로 통제하는 등의 여과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언어심리학에서는 이 제어(constraints) 장치 또는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제어기능은 본능처럼 순식간에 되어지는 일이다. (1) 신경적(neurological) 제어 (2) 사회적(social) 제어 (3) 개인적(individual) 제어 등이다.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경험이 많든지, 많은 대인관계 경험 등은 이러한 여과장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sup>28)</sup> 또한 개인의 내면에 여과장치가 많아진다는 것은 편견을 키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29)</sup>

## 2) 유입 제어

어떤 정보의 유입(input)과정에서 사람은 누구나 (1) 선택적 경청(selective attention) (2) 선택적 이해(selective comprehension) (3) 선택적 수용(selective

tive reception)의 반응을 보인다. James F. Engel은 여기에 작용하는 제어장치로 네 가지 요소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1) 세계관 (2) 학력(지식)과 경력(경험) (3) 신조(신앙)와 태도(삶의 자세) (4) 개성 등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것들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들이며 유동적인 것들이다. 이를테면 Engel은 제어장치의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경험을 제시했으나 경험이 제어장치로써 활용되기까지는 다양한 경험과 반복된 경험 등에 의해 형성된다.<sup>30)</sup>

Gerald Egan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유입할 때,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발달시켰던 다양한 여과장치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다고 보았다.<sup>31)</sup> Engel은 제어장치 가운데 세계관을 하나의 요소로 본 반면, Walter Henrichson과 Gayle Jackson은 제어장치를 ‘여과장치’ 또는 ‘세계관’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에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강조했다.<sup>32)</sup> 즉 여과장치를 (1) 사회구조 (2) 경제관 (3) 정치 (4) 종교 등으로 보았다. 여기서 사회구조는 한 사람이 출생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정의 형태는 그의 세계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경제관도 자본주의에서 성장했는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랐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여과장치는 달라진다고 보았고, 정치적 입장과 종교적 태도도 역시 한 사람의 판단에 작용하는 여과장치로 보았다.<sup>33)</sup>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왜곡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여과장치가 그것을 판단하도록 요청하여 결국 나름대로의 편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여과장치가 견고할수록 편견은 심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것 가운데서 미리 형성된 제어장치는 귀에 들어오게 될 정보를 제어하거나 여과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를테면 회교 문화권에서 출생한 사람은 회교의 교리를 먼저 듣고, 그것을 지식으로 삼고, 세계관과 신앙으로 삼고, 삶의 태도로 삼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개념을 들을 때, 불순물로 생각하고 거부하거나 선택적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 만일 회교문화권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은 온전한 신(神)이시므로 아들이 있을 수 없다고 믿는

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는 극악한 이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제어장치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면 상담에서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성경을 대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제어장치에 의해서 그 내용을 거르는 경향성이 있다. 후차적 정보인 성경내용이 이미 형성된 제어장치에 의해서 평가, 제어 받는 과정을 거치지만 선행 제어장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성령은 인간의 제어장치를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지 않으면 상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 관철과 골수를 찢어 쪼갬다.”는 말씀이 기독교상담에서는 의미있는 메시지이다. 즉 인간의 제어장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가 종래에 가지고 있던 여과장치의 변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이러한 여과장치를 바꾸는 일이 기독교상담의 과제이며 진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롬 12:2).<sup>34)</sup>

#### 4. 언어를 통한 내담자 분석

말(*logos*)은 소리(*φωνη*)를 통해서 전달된다. 비유컨데, 수레에다 무엇을 싣는냐에 따라서 어떤 수레인가가 결정되듯이 말에 소리를 실었을 때 그것이 언어가 된다. 말에 기쁨을 담으면 기쁨의 말이 되는 것이며, 말에 사랑을 담으면 사랑의 말이 되는 것이고, 용서를 담으면 용서의 말이 된다. 그리고 그 말은 담겨져 있는 내용대로 이행되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즉 용서의 말을 하면 용서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며,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행동의지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모두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삶이 변하지 않는 많은 경우에 말이 변하지 않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내담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내담자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상담자의 자질이고, 역할이며, 상담의 중요한 과제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많으나 상담자는 내담자의 언어에 의존한다. 언

어는 한 사람의 사고에서 기인되며, 그의 내면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이며 통로이다. 언어를 통해 내담자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진술이지만 내담자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언어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어떤 장치에 의해서 삭제, 은닉, 누락, 왜곡, 허위,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이 경험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면 끔찍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이 틀림없다.<sup>35)</sup> 정신분석학적 상담에서 자유연상(free-association)은 전적으로 언어를 통하여 내담자의 심리와 무의식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용어 가운데 분석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화

일반화(generalization)는 개인의 경험이나 사건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려는 언어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반화는 일종의 편견과 다름없다. 이를테면 “모든 여자들은 돈 있는 남자를 좋아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여자에게 배척당한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재력이 없으면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불안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행동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의 정서는 ‘우리’라는 용어를 말과 글에서 지나치게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내담자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특성을 일반화시키려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 2) 삭제, 은닉, 누락

삭제(deletion)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의식과 무의식의 양면성이 있다. Juliet Grayson과 Brigid Proctor는 인간이 생각 속에 있는 개념을 언어화 할 때 상당부분 삭제하는 현상은 의식 속에 정보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36)</sup> 그러나 모든 언어의 삭제, 은닉, 누락이 의식 속에 정보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캠브리지(Cambridge)대학교 교수 Wittgenstein이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이다.”<sup>37)</sup>라고 말했다. 물론 이 진술은 직접적으로 언어의 삭제, 은닉, 누락과 관련된 말은 아니라, 언어가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이 100이라면 언어적 표현은 80정도였음을 나타낸 말이다. 이처럼 어휘나 용어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의도, 또는 비의도적으로 언어의 삭제, 은닉, 누락을 통해서 80정도만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상담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 대개 이런 현상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또는 자기과장에서 비롯되기도 하므로 상담자의 각별한 분석이 요구된다. 내담자가 자서전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허위나 거짓 또는 과소의 의도없이 많은 사건과 경험이 누락되게 마련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슬픔과 마음의 상처를 담은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축복된 기억을 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축복된 이야기이지만 축복을 강조한 나머지 죄책감을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상담자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3) 과장, 과소를 통한 왜곡

왜곡(distortion)은 자신에게 입력된 정보와 경험, 감각을 의도적으로 변질시켜서 지각하거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과장과 과소가 내포되어 있다. 과장은 사실 이상으로 내용을 부풀려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과소는 사실 이하로 내용을 축소시켜 역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표현을 왜곡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용어로 거짓말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악의적인 왜곡과 거짓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의없이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표현상 왜곡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대개 가정에서는 물론, 친구 간이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 서로 다투거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문제가 되는 행동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지적하거나 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이



를테면 부부싸움도 분석해보면 단어를 잘못 선택하여 더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항상 늦게 와? 단 한 번도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잖아!” “당신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말해?” “당신이 내 생각하는거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당신이 언제 나한테 선물 사준 적 있어?”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부정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다가 결국 기분이 나빠지면서 심하게 다투게 된다.<sup>38)</sup> 설령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평가가 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억울한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과장 또는 과소평가를 받고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어찌다가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또는 비록 자주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항상’ 한 것은 아닌데, 상대방으로부터 ‘과장’ 과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 라는 잘못된 평가를 받게 되면 누구나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항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빈번히 나타나는 부정적 행동을 부각시켜 행동을 수정시켜보려는 시도에서 말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말은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손상될 수 있다.

언어 왜곡현상의 이유는 청자의 인지적 틀 또는 정형화된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틀이나 정형화된 인식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나 상대방의 언어를 들을 때, 이 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에 기초하여 왜곡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왜곡을 인식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떤 인지적 틀 또는 정형화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 4) 당위성

Gary R. Collins는 마음속에는 항상 의무적인 말들(should statements)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 기준이 높을수록, 완전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클수록 더 많은 좌절을 겪고 신경정신증에 노출되므로 이것이 비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고 보았다.<sup>39)</sup> Ellis도 역시 당위적 사고가 신경증의 원인이 되는 비합리

적 신념체계로 이해하고 있다. 즉 “절대로” “결코” “반드시” 라는 용어의 빈번한 사용이 문제이다. “절대로 안 된다”는 내용이 많이 있을수록 그 사람의 정신건강은 나빠지는 것이다. 또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도 같은 개념이다. Ellis는 사회적 압력으로 인한 must의 삶의 태도와 언어 사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Musturbating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다. REBT에서 “반드시 해야만 된다(must)”는 용어와 그 신념체계가 정신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온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합리적 신념체계가 생성된다고 보기까지 한다.<sup>40)</sup> 당위적 사고(musturbation)는 want적 사고와 wish적 사고로 바꿀 때 합리성이 획득된다고 본다. 즉 “반드시 해야 한다”는 must의 격을 한 단계 낮추어 “...을 하기 원한다” 또는 “...을 하고 싶다”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 5) 부정확성

부정확한 용어(uncertainty)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내담자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저는 슬퍼요!” 무엇으로 인해서 왜 슬퍼하는지에 대한 진술이 없이 그저 슬프다는 말을 던진 것이다. “남편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로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싫어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내담자의 생각에 자신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현재의 감정에 대한 지각이 전체 정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 6) 선호빈사(=빈사용어)

언어를 통해서 내담자의 생각을 분석할 수 있는 단서들 가운데 내담자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를 분석하는 것이다. 빈사용어(frequent), 즉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 어떤 용어들이 자주 사용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내담자의 사고와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내담자가 사용하는 빈사, 즉 반복된 단어나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을 때 그의 내면 상태를 가장 쉽게 드러내는 경우가 보편적인 현상이다.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의 내면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즉 이론적으로는 상대방의 개인적 경험, 사회적 위치, 신경적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신경적 제어는 사실상 분석하기가 곤란한 분야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위치를 분석하는 것은 상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한 개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선호빈사(選好賓辭, preferred predicate)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경험에 기초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빈번히 사용하는 단어는 자신의 경험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호빈사를 추적함으로써 그의 경험과 생각을 찾을 수 있다.

#### 7) 심리적 변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며 상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sup>41)</sup> 즉 같은 사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야기 했으나 다음 상담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순이나 거짓이라기보다는 내담자의 사건에 대한 해석의 변화이며 심리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기도 하며,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도 어떤 영향을 받아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바꾼 이유 또는 심리적 상황 변화의 이유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8) 은유 및 심리적 투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감추거나 아니면, 투사적 기법을 활용하거나 은유(metaphor)를 통해서 드러내곤 한다. 인간의 언어에서 은유를 사용하게 된 것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되었지만, 학문적 시각에서 은유를 다루게 된 것은 Aristotle(384-322 B.C.) 이래로 이런 논의가 있어 왔다. 은유에 대해서 집중적이며, 의미있는 논의가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은유는 “A는 B이다.”라는 방식의 비교수사법으로써 한 가지 유사성을 가진 다른 것을 빌어 대비시키는 표현양식이다. “A는 B이다.”라는 형식으로 직접 표현하기 때문에 그 뒤

앙스가 직유보다 훨씬 강하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선생님! 그 여인은 천사 같았습니다.”라는 직유적 표현보다는 “선생님! 그 여인은 천사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런 은유적 표현이 자신의 느낌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을 듣는 이도 더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또한 은유는 또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람은 돌입니다.”라고 표현했을 때, 사람을 어떻게 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은유는 사람이 돌로 설명될 만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써 돌의 특성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유는 알기 어려우며, 은유도 넓은 의미에서 상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은유는 과장적 의미와 과소, 축소적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연필이 칼이라는 것은 당연히 과장된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성경에도 나타난 표현이지만 “저는 벌레입니다”(시 22:6)는 표현은 다분히 과소적 은유이다. “제 인생은 방아 찧기입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인생을 은유로 묘사했을 때, 방아 찧기의 특성 속에 내담자의 삶의 특성이 담겨져 있어서 이 둘 간에 서로 공통적인 어떤 것이 환치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담자는 그것을 알 길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는 내담자의 설명이 필요하다. 은유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해석을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하다. 즉 설명되기 전까지는 가치나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며, 설명될 때에 비로소 더욱 충분히 설명되거나 언어적 가치를 인정받는 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내담자의 상황을 은유로 비유토록 요구하고 그 은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Aristotle은 「수사학」에서 은유를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은유는 부적절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은유는 웅대하고 과장적이어서 만약 그것을 억지로 갖다댄 경우, 이해하기조차 어려울 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상담현장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나 경험 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을 때, 수치, 강한 반발, 저항 등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은유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과장 또는 과소할 수 있다는 것을 상담자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이는 척하거나 짐작하는 것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알 수 없게 되므로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9) 수행자 상실

수행자 상실(lost performative)은 주어의 은닉을 말한다. 서술하는 자를 감춘 상태에서 자신의 신념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써 이는 우리말의 특징이기도 하다. 우리말은 술어를 중심으로 한 다원적인 언어구조로써 주어 가 많이 생략되기 때문에 결국 술어 중심의 언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어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머리가 다 아프다!” 술을 마신 행위의 주체가 나타나 있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축어 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1: 그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내1: 마음이야 많이 상했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인데요.

상2: 잘 소화하신 것 같군요.

내2: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더군요.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위와 같은 상담을 분석해 보면 주어를 생략하고도 서로 의사전달이 충분히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상 수행자 상실은 심리적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시도지만, 특히 한국적 문화상황에서는 수행자 상실이 반드시 그렇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다만 언어습관이라고 이해해야 좋을 것이다.

내담자는 자신의 사고를 (1) 일반화 (2) 삭제, 은닉, 누락 (3) 과장 또는 과소를 통한 왜곡 (4) 당위성 (5) 부정확성 (6) 선호 빈사 (7) 수행자 상실 등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감추게 된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말을 완전히 사실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상담현장에서 단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대개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야 내담자의 상태를 더욱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5. 언어에 대한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적 대안

### 1) 언어의 영향 인식

언어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이 있다. 좋은 말 또는 진리의 말이라고 해서 힘을 가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언어는 진리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영향력이 있다. 즉 영향력이란 사고전환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거짓 언어의 가장 강력한 영향은 바로 광고이다. 광고는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것을 산업화시킨 것이다. 한 사람이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를 동시에 접하게 되었을 때 부정적 정보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다섯 가지를 듣고, 단점을 한 가지를 들었다면 장점 다섯 가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단점 한 가지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다. 입에서 일단 나간 말은 취소가 안 되며 책임이 뒤 따르게 된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사 55:10-11).” 언어도 마찬가지로 말이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 2) 고백적 언어의 치유효과 및 심리적 제어기능 제거

인간 상담자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여과하여 드러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충분히 드러내는 것처럼 더 나은 상담과 치료는 없을 것이다.<sup>42)</sup> 보수적인 기독교상담학의 일각에서는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회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말할 것을 권면하는 상담학자들도 있다.<sup>43)</sup> 일반상담심리학자들은 집단상담에서 또는 참만남의 집단(encounter group)에서 여과장치를 제거하면 진솔한 자기 이야기가 표출될 것이며, 그 때 치료적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up>44)</sup> 기독교상담이나

일반상담에서 공히 고백은 치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사람은 다그치거나 설득한다고 하여 자신의 치부를 쉽게 드러내지 않게 되므로 진정한 고백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rapport)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렵다.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제어기능은 다르게 작용될 것인데 이는 고백의 정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차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내용, 자신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 예측되는 내용,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타나 부정적 평판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는 내용 등을 걸러내는 신경적 작업을 하게 된다. 누구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하여도 이미 그의 내면에 다양한 여과 및 제어장치(neurological, social, individual constraints)가 본능처럼 작용되어 사람 앞에 절대적으로 솔직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또한 고백에 대한 강요가 나타나게 되면 자신을 은폐하거나 심리적 폐쇄성 등의 방어기제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고백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이다. 또한 자신의 고백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반응하여 줄 실존적 인물 앞에 고백하고자 하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방해할 수도 있다. 대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존재 또는 그 분의 인격성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성령께서 인간의 제어장치를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미쁘심과 자비하심을 내담자에게 충분히 인식시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억압기제들을 제거하고, 진솔한, 가감없는 고백이 나타나도록 도와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고백하는 것이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감을 느낄 때 제어장치를 풀고 감정을 고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상담자나 집단 구성원들은 고백자에 대해서 쉽게 선불리 판단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고백의 양과 질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상담자, 집단 구성원 및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더 솔직하게 더 많이 공개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방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수용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사람을 더욱 의지하며, 사람의 시청각적인 안위와 지지를 얻

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인간적 교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이 되고 만다.

### Ⅲ. 닫는 글

내담자는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사건이나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한다.<sup>45)</sup> 언어를 통해서 내담자를 분석하려는 것은 미시적 상담의 노력이다. 하지만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여과망 장치로 인해서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인간 상담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여과망을 제거하고 고백적 기도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 이는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상담자의 중재, 개입을 포기하거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치료와 회복의 장으로 나오도록 돕는 효과적 중재자의 역할이다.

내담자가 사건과 사고, 심리적 외상 등을 당했을 때 바로 그 감정을 이미 인간 상담자에게 말로 표현해 버리고 나면 그 현장감은 감소되고 만다. 그것을 치유라고 한다면 상담은 하나님을 배제한 회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 인간 상담자에게 감정을 충분히 드러낸 후에 정리된 감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2차적으로 생각한 결과가 된다. 현장감이 인간 상담자에 의해 희석되지 않고 내담자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복음주의 상담자이다. 즉 상담자와의 담론을 통해 마음의 시원함을 이미 얻은 사람은 그 희석, 또는 감소, 해소된 상태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약화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바른 상담이 있기 어려우며 상담자는 우선 내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해주면서 내담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심리적 여과장치를 제거한 후, 하나님께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때 진정한 치유가 나타날 것이다. 복음주의 상담에서 상담자는 치료자이거나 치유자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자이신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며,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위기에 처한 내담자를 돕는 자로서 중재 또는 개입(intervention)하는 자이며 하나님과 내담자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bridge)이다. 여과망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낱알이 고백(homologia) 할 때 진정한 치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인간 상담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돕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상담자 하나님에게 고백할 때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

#### 【 참고문헌 】

- 박우수. 「수사학과 말의 힘」. 서울: 대흥. 1992.
- 이철수, 김준기. 「언어와 언어학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0.
- Adams, Jay E. *Comp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Baker. 1970.
- Capps, Donald E. *Preaching and Pastoral Counseling*. 전요섭 역. 「목회상담과 설교」. 서울: 솔로몬. 1996.
- Collins, Gary R. *The Magnificent Mind*. 허영자 역. 「마음탐구」. 서울: 두란노서원. 1997.
- Couture, P. D., & Hunter, R. J. *Pastoral Care and Social Conflict*. Nashville: Abingdon. 1995.
- Eberhardt, Tim. "Storytelling and Pastoral Care." *Journal of Pastoral Care no 1 (Spring 1996): 23*.
- Egan, Gerald. *The Skilled Helper*. 채성봉, 유계식, 박은영 공역. 「유능한 상담자」. 서울: 학지사. 1997.
- Ellis, Alber. *Anger: How to Live with and without It*. 홍경자, 김선남 공역. 「화가 날 때 읽는 책」. 서울: 학지사. 1999.
- Engel, James F. *How to Start Counseling*. 정진환 역. 「당신의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는가?」. 서울: 조이선교회. 1996.
- Farb, Peter. *Word Play*. 이기동 외 공역. 「말 그 모습과 쓰임」. 서울: 한국문화사. 1997.
- Frank, E., Dance, X., & Larson, C. E. *Speech Communication: Concepts and Behavior*. New York: Holt. 1972.
- Gerkin, Charles V. *The Living Document*. 안석모 역. 「살아있는 인간문

- 서」.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 Henrichson, Walter and Jackson, Gayle. *A Lay Man's Guide to Applying the Bible*. 김영권 역. 「성경적용과 생활훈련」.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 Hunter, Rodney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Grand Rapids: Abingdon. 1990.
  - Jackson, Edgar N. *A Psychology for Preaching*. New York: Harper & Row. 1981.
  - Jeeves, Malcolm A., Myers, David G. *Psychology through the Eyes of Faith*. 박원기 역. 「신앙의 눈으로 본 심리학」.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5.
  - Jones, Ilion T. *Principles and Practice of Preaching*. 정장복 역.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 Meier, Paul D., Minirth, Frank B., Minirth, Frank B., & Ratcliff, Donald E. *Introduction to Psychology & Counseling*. 전요섭외 공역. 「기독교상담심리학개론」. 서울: CLC. 2004.
  - Monroe, Philip G. "Exploring Clients' personal Sin in the Therapeutic Context -Theological Perspectives on a Case Study Self Deceit." McMinn, Mark R. & Phillips, Timothy R. *Care for the Soul*. Downers Grove, IL.: IVP. 2001.
  - Morgan, Alice. *What is Narrative Therapy?* 고미영 역. 「이야기치료란 무엇인가?」. 서울: 청목. 2003.
  - Miller, G. *Becoming Miracle Workers*.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97.
  - Palmer, Stephen (ed.). *Introduction to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김춘경, 이수연, 최용용, 홍종관 공역.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4.
  - Pesch, O. H. *Gebet Und Religiöse Erfahrung*. 편집부 역. "기도와 종교적 체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제44집(1976, 3): 81.
  - Rosntha, Robert, & Jacobson, Lenore. *Pygmalion in the Classroom*. 한준상 역. 「피그말리온 효과」. 서울: 이끄리오. 2003.
  - Trench, R. C. *Synonyms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48.
  - Wright, Norman. *Crisis Counseling*. 전요섭, 황동현 공역. 「위기상담학」. 서울: 콤파출판사. 1998.

[ 후주 ]

- 1) 언어는 문화의 기초가 되고, 문화는 언어의 기초가 된다. 언어와 문화는 서로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Paul D. Meier, Frank B. Minirth, Frank B. Minirth, and Donald E. Ratcliff, *Introduction to Psychology & Counseling*, 전요섭 외 공역, 『기독교상담심리학개론』(서울: CLC, 2004), 182.
- 2) Meier, Minirth, Minirth, and Ratcliff, 167.
- 3) 이철수, 김준기, 『언어와 언어학의 이해』(서울: 한국문화사, 2000), 17.
- 4) 언어심리학(psycholinguistics)은 언어의 본질, 구조와 사용이 사용자의 심리적 과정과 갖는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 5) Alber Ellis, *Anger: How to Live with and without It*, 홍경자, 김선남 공역, 『화가 날 때 읽는 책』(서울: 학지사, 1999), 82.
- 6) Charles V. Gerkin, *The Living Document*, 안석모 역, 『살아있는 인간문서』(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30-1.
- 7) E. Frank, X. Dance, and C. E. Larson, *Speech Communication: Concepts and Behavior* (New York: Holt, 1972), 47.
- 8) Ilion T. Jones, *Principles and Practice of Preaching*, 정장복 역, 『설교의 원리와 실제』(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14.
- 9) 박우수, 『수사학과 말의 힘』(서울: 대흥, 1992), 96.
- 10) Wattenberg와 Cliffor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높은 지능지수와 비교하여 어린이들의 강한 자부심이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해 보았다. 놀랍게도 지능지수가 좋으면서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은 자부심이 강한 친구들보다 잘 읽거나 빨리 읽지도 못하였다. 훌륭한 자아상을 갖는다는 것은 교실 밖에서도 중요하다. 마약을 하거나 학업을 포기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상에 영향을 받는다. 자녀를 대할 때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 그들에게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키워줄 수 있다. 자녀의 단점을 들추면 자녀들은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낮은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결국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과 실패감을 갖게 할 뿐이다.
- 11) P. D. Couture and R. J. Hunter, *Pastoral Care and Social Conflict* (Nashville: Abingdon, 1995), 26.
- 12) Edgar N. Jackson, *A Psychology for Preaching* (New York: Harper & Row, 1981), viii.
- 13) O. H. Pesch, *Gebet Und Religiöse Erfahrung*, 편집부 역, “기도와 종교적 체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제44집(1976, 3): 81.
- 14) Malcolm A. Jeeves, David G. Myers, *Psychology through the Eyes of Faith*, 박원기 역, 『신앙의 눈으로 본 심리학』(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5), 128.
- 15) Jackson, xi.
- 16)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 때, 각간(角干)이라는 충공의 마음이 어수선하여 행동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는 기록이 있다. 국의(國醫)가 그를 진맥하고 나서 용치탕(龍齒湯)을 처방했다고 한다. 그러나 효험이 없던 차에 녹진(祿眞)이라는 사람이 “이 병은 신체 기관장애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울적

한 상태가 쌓여서 생긴 것이니 약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런 후, 답론으로써 치료를 건의했는데 이 답론(談論)이 바로 상담이다. 그래서 녹진은 각간을 만나 답론을 나눔으로써 그의 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드러냄으로써 마음이 활기분해지는 치료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 17) Rodney Hunter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Grand Rapids: Abingdon, 1990), 860.
- 18) Ellis, 82.
- 19) R. C. Trench, *Synonyms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48), 112-4.
- 20) G. Miller, *Becoming Miracle Workers*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97), 21.
- 21)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Baker, 1970), 49-50.
- 22) Walter Henrichson and Gayle Jackson, *A Lay Man's Guide to Applying the Bible*, 김영권 역, 『성경적용과 생활훈련』(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77.
- 23) James F. Engel, *How to Start Counseling*, 정진환 역, 『당신의 멧시지는 전달되고 있는가?』(서울: 조이선교회, 1996), 41.
- 24) Meier, Minirth, Minirth, and Ratcliff, 94.
- 25) Meier, Minirth, Minirth, and Ratcliff, 31.
- 26) 잠언 29:20절은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사고가 끼칠 반항에 대해 생각없이 불쑥 내뱉는 것이다. Norman Wright, *Crisis Counseling*, 전요섭, 황동현 공역, 『위기상담학』(서울: 쿰란출판사, 1998), 4장.
- 27) Jackson, xx.
- 28) John Wesley는 “성경적으로 분명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위배되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말들은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특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방법이 다르거나 부족함이 드러나는데도 그것을 말하는 모든 주장들은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도적 인출제어를 강조한 말이다. Donald E. Capps, *Preaching and Pastoral Counseling*, 전요섭 역, 『목회상담과 설교』(서울: 솔로몬, 1996), 64.
- 29) Gerald Egan, *The Skilled Helper*, 제성봉, 유계식, 박은영 공역, 『유능한 상담자』(서울: 학지사, 1997), 120.
- 30) 예를 들면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자신의 증상을 해소(치료)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곧 바로 갖는 생각은 그의 가치관에 기인된 것이다. 의학을 신뢰할 경우에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두통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역시 자신의 가치관에 의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자신을 치료한 의사의 실력에 대한 평가,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인지, 민간요법에 의하여 치료를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목사에게 기도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이 때 민간요법으로 대추를 차로 달여서 마시며 취침 시 모자를 착용하고 자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역시 자신의 가치관에 달려있다. 민간요법의 지침대로 시행했으나 두통이 낫지 않았을 때는 그와 관련된 가치관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아래 수정된다. 그러다가 목사의 기도를 받기로 걱정했을 때, 사실상 자신의 내면에 동의된 행동이 아니지만 주위의 강력

한 권고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 사람의 신앙치료에 대한 가치관은 견고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목사의 기도로 두통의 증상이 개선, 호전되었을 때, 이 사람은 신앙치료와 목사를 대하는 태도 및 자신의 가치관에 수정을 가하게 된다. 이런 경험이 빈번해지면 빈번해질수록 견고한 가치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어떤 정보의 유입과정에서 여과장치는 가변적이며 크게는 경험, 세부적으로는 경험의 빈도, 지각작용, 이해력 등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 31) Jackson, xx.
- 32) Egan, 119.
- 33) Henrichson & Jackson, 67.
- 34) Henrichson & Jackson, 77.
- 35) Stephen Palmer (ed.), *Introduction to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김춘경, 이수연, 최용용, 홍종관 공역,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해」(서울: 학지사, 2004), 241.
- 36) Palmer, 241.
- 37) Peter Farb, *Word Play*, 이기동 외 공역, 「말 그 모습과 쓰임」(서울: 한국문화사, 1997), 196.
- 38) 간혹 TV를 보는 자녀에게 “너는 하루도 빠짐없이 TV를 보느냐?”고 과장을 통한 왜곡이 나타났을 때, 화자는 TV를 보는 것이 나쁘다는 인지적 틀을 가지고 있거나, 상대방에게 TV를 보지 말라는 정형화된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왜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보아야 한다.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 칠 때도 이런 경우는 흔히 발견된다. “넌 맨 날 그렇게 숙제 안하고 텔레비전만 볼래?” “넌 왜 그렇게 항상 늦냐?” 이런 말을 들은 자녀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다가 감정이 상하게 된다. ‘항상’ ‘언제나’ ‘맨 날’ ‘늘’ ‘하루도 안 빼놓고’ ‘꼭’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누구나 감정에 자극을 받고 방어 기제가 나타난다. 이런 단어들이 부정적인 말과 함께 사용될 때 그것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없다. 똑같은 단어지만 이런 단어들이 긍정적인 말과 함께 사용되면 호뭇함을 느끼게 된다. “저 애는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어요!” “언제나 저렇게 웃고 다녀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때로는 격려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이 바람직한 행동을 그렇게 빈번히 한 바가 없지만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며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더욱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 39) Gary R. Collins, *The Magnificent Mind*, 허영자 역, 「마음탐구」(서울: 두란노서원, 1997), 128-9.
- 40) Ellis, *Anger*, 58.
- 41) Alice Morgan, *What is Narrative Therapy?* 고미영 역, 「이야기치료란 무엇인가?」(서울: 청목, 2003), 21.
- 42) Philip G. Monroe, “Exploring Clients' personal Sin in the Therapeutic Context - Theological Perspectives on a Case Study Self Deceit,” Mark R. McMinn, Timothy R. Phillips, *Care for the Soul* (Downers Grove, IL.: IVP, 2001), 208.
- 43) Meier, Minirth, Minirth, and Ratcliff, 31.
- 44) Meier, Minirth, Minirth, and Ratcliff, 94.
- 45) Tim Eberhardt, “Storytelling and Pastoral Care,” *Journal of Pastoral Care no 1* (Spring 1996): 23.

【 Abstract 】

Client's Language Analysis in Christian Counseling of  
Korean Cultural Situation

Joseph Jeon  
(Ph.D., Ed.D., Sungkyu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at client's language analysis in counseling of Korean cultural situation centering around evangelical counseling. The language is the most important or necessary mean for understanding, and diagnosis, and analysis client's psychological traumas, spiritual situations, problems in counseling. The counseling is not electric therapy, drug therapy, and sports therapy but semantic therapy through language. A counseling is able to restore, heal, change, and improve a client's traumas, situations, problems, etc.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for a counselor to analyze client's inner world through language merely. The reason is that a client has some linguistic filters in a brain: neurological, social, and individual filters. The filter functions constraints in a client's mind, even though in front of a counselor. Accordingly, an evangelical counselor ought to know the limitation, and restriction of analysis through a client's language. Also, a Biblical counselor have to guide a client to the omniscient God as a real counselor. A client ought to talk to God as a counselor totally without filters and constraints.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counseling, language, semantic therapy, confession.